

2023. 3. 16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안전조사과장	김 영 제	3146-1640
담 당 자	박 태 식	3146-1648
관련 누리집	https://arisu.seoul.go.kr	

서울시, 모든 상수도 야간 공사장에 '안전' 밝히는 '반딧불'이 뜬다

- 올해부터 상수도 야간 공사장 모든 작업자가 시인성 높은 엘이디(LED) 안전장구 착용
- 밤에는 시야가 좁고 어두워 야간 작업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보호 대책 마련
-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반딧불처럼, 상수도 야간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
- 지난해 '임무형 컬러 안전모' 이어, 작업자 지키는 '안전지킴이 반딧불' 도입

-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(본부장 유연식)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상수도 야간 공사장에 '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'을 도입한다고 16일(목) 밝혔다.
- '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'은 상수도 야간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자체 발광 엘이디(LED)가 부착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해, 건설 장비 및 차량 운전자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.
- 야간에도 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, 야간에 어둠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.

-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반딧불처럼 야간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반딧 아이디어다.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상수도 야간 공사 현장(올해 59건 예정)에 적용된다.



-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상수도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4건으로, 모두 야간에 발생했다. 이는 차량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야간 상수도관 교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.
- 이에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교통전문가가 참여한 자문·검토 회의를 거쳐 야간 공사장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강화 시행하였다. 추가로 여기에 올해부터 ‘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.
 - 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마다 신호수와 교통안전원을 배치하지만,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고 어두워 야간 작업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.
- 한편 지난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 현장에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작업자의 역할을 식별할 수 있도록, 안전모 색상만으로 현장 근로자의 주요 임무를 파악할 수 있는 ‘임무형 컬러 안전모’를 도입하기도 했다.

- 현장을 지도·감독하는 ‘감리원’은 파란색,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‘현장소장’은 녹색, 일반 작업자는 흰색 안전모를 구분하여 착용한다.



▲ 임무형 컬러 안전모 현장 적용 '전'	▲ 임무형 컬러 안전모 현장 적용 '후'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: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활성탄 투입 공정을 확인하는 모습.
 감리원(파란모자), 현장소장(초록모자), 현장근로자(흰색모자)가 한눈에 식별된다.

-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“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은 비록 작은 아이디어일 수 있으나 현장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결과”라면서 “서울시가 착안한 안전 우수사례들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되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

▲ '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' 적용 전, 상수도 야간 공사장



▲ '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' 적용 후, 상수도 야간 공사장